

한국사회의 경제 정의 실천을 위한 시리즈<1>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가능한가

한국자본주의 구조와 정책실패로 가중되는 모순

6공화국 이후 경제위기의 심화와 이에 따른 민중들의 생활고 역시 가중되어 왔다. 이에 본 시리즈는 국내·외 정치·경제정책과 조응하면서 경제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편집자註>

I. 한국경제의 위기

지난 86-88년간의 한국경제는 저금리자유화, 저임금 상대적 저환율로 인해 외경상 부의 성장상태에서 고율의 성장을 이룩하였을뿐 아니라 외채감소라는 한국 경제초유의 현상을 맞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경제는 자본축적의 한 방식으로 도입된 증권시장운영 등 제재정책에 의한 외환과 물인으로 현물투자에 소홀,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가중시켰으며 기업들의 능동적인 대응능력부족이 기업들의 경영도 그후 3차 현상전 대외경건의 호전도 소멸되어가는 89년에는 곧바로 경기침체, 외환경변화를 야기하여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

특히, 1988년부터 3년간 부동산과 주가폭락에 따른 비생산적 자본축적은 지수물가에 대한 신뢰저하를 가져와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하였다. 부의 격차가 급격히 심화되어 대중적 실망과 경제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팽배, 갈등을 표면화 시키기도 하였다.

물가, 특히 부동산의 가격폭등은 사회부문의 생활비 부담과 경영의 기초를 위협하였으며, 잠재하고 있던 정치·사회적 경제갈등이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격렬하게 표출되었으며 기업 및 정부는 불황기를 맞으면서 기업 및 투자의 목적화와 기업 및 경영자의 몰락과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II. 한국경제 체제의 실패

지난 60-70년시기는 성장일변도의 정부정책이 강력한 동원체제를 견인함으로써 한국경제는 생산주체 중심의 일방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일단 외부적인 성장주체 중심의 일방적인 성장주체로 출리 생산수단의 집착은 분배의 정당성을 경시한 결과 산업과 집단의 다양화, 직종의 세분화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니는 노동자 계급의식을 점화시켰다.

또한 그동안 한국경제의 구조

가 종속적 경제구조로 일관되어, 외압에 의한 불안정한 환율정책의 변동이 지금의 국면에 대해 한몫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구조적 원형과 시장개방 등의 외압에 의한 개방, 거부할 수 없는 대외무역환경의 악화를 낳았다.

물론 기간 누적된 노사갈등의 심화가 표출됨에 따른 높은 임금인상과 그것의 전가과정상의 조정과정도 문제이다. 외국인 분배 구조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일부계급의 과소비와 투기, 인플레이션 및 기대수익의 확산으로 인한

이러한 농업의 상대적 경제의 심화는 외국 농산물수입이라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그리고 한국자본주의 발전구조의 파행성은 분단이라는

려한 결함이 한국자본주의의 특정한 것이다. 70년대까지 국가는 금융수단을 장악 독점대자본을 직접 육성하였고 80년대에 들어서는 각종 특혜와 지원 그리고 정치자금의 상호교류를 통해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졌던 것이다.

독점의 경제와 국민경제의 종속화가 경제구조의 국공을 띠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비교우위에 입각한 공업 편향투자에 따라 농업경제는 침체되고 악순환의 연속을 거듭하여 현 농업은 아직까지 농기구 개선을 물론 관개시설의 낙후성도 면치 못하고 소농의 경영이라는 전근대적인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상대적 경제의 심화는 외국 농산물수입이라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그리고 한국자본주의 발전구조의 파행성은 분단이라는

즉 한국의 자본주의 제반 경제적 모순에 대한 사회주의를 안보의 차원에서 저지하여 한국사회에서 계급구조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농민의 상대적인 빈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정후 세계자본주의 재편성에 있어 국정의 정치·경제 군사적인 역할을 얻을 수 있겠고 본 미국은 자본운동에서 선행투자로 되는 국가자본의 무상제공인 원조를 바탕으로 한국자본주의를 종속적으로 재편하고 민족자본의 부재상태를 전근대적이고 패관적인 관료자본적인 형태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그 이후 군사독재정권의 수출 주도형 경제정책은 저임금체제에 기초한 급속한 불균형 성장을 가져왔으며 경제외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 패관적 관료자본주의는 자기증식과정을 거듭 결국 자본

이와같이 80년대의 한국자본주의 발전은 국가의 개입과 외국자본의 유착을 매개로 독점대자본이 자기자본을 명실상부한 독점적 재편으로 자본의 집중을 가져오는 과정을 또다시 거친다. 동시에 노동부문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탄압이 가해짐으로써 국내자본은 국제경쟁에서 부분적으로 향상되기도 하였다. 이것이 3차 현상전의 기초를 이뤘으나 기술혁신의 상대적 문화와 경제의 위기·통상마찰로 이어졌다. 즉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가 정체되고 동시에 자금이 투기적 부문으로 흐름으로 인해 산업구조고도화라는 총자본의 자제가 위축되리게 되었다.

III. 경제구조의 민주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자본주의 전개과정은 대외적으로 자본의 종속과 실패과정이었으며 대내적으로는 독점의 형성 강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 과정이었다.

또한 현재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은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의 벽을 높이 쌓아가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국의 광범위한 수출입 규제에 한국에 양태 및 농산물 등 산업전반에 걸쳐 우리에겐 수입개방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자본주의 경제는 위기에 이르고 있다. 그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이 위기를 개방화정책과 민족재정립 독점대자본에 대한 특혜강화로 해결하면서 그 부를 증소시키고 노동자·농민에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민중에 기반을 둔 민족경제적 기반이 없는 외형적 대외종속적 성장주의의 경제체제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그리고 이 개혁을 해방후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흐름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껴왔다.

생산물에 참여한 자가 분배에서 소외당하고 국민경제의 대부분은 소비와 투자의 국외로 누출되는 경제구조는 국내시장의 협소화와 자본축적의 위기

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더욱더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시장의 개방으로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민족의 위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국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한 경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를 민중에게로 확산을 통해서 국내시장규모를 튼튼히 하고 산업간의 연관을 강화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민중적 토대에 기반을 둔 경제의 전면적 위상회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맞이한다. 전근대적 사회의 불안전과 노사분규, 경제정책실패, 세계경제불황 등으로 인한 지금의 침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전진적 자세로써 국내 정치·경제와 질서정상으로 사회경제의 민주화 실현을 위하여 앞장서야 할 것이다.

<기획부>

대외종속·재벌 독점 강화가 악순환 요인 민중경제로 전환시킬 전반적 구조 조정 요구돼

안정기반의 동요를 조장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 또한 한 한국자본주의 경제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기업은 자본의 제재로 차등과 그로인한 구조조정의 소홀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세계경제의 변화속에서 한국경제는 독점대자본주의 하에 대외 의존적, 종속적인 구조, 그리고 비자주성으로 인한 정책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경제체제 모순관계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대자본의 힘은 다원화된 정치 정세와 힘의 균형, 그리고 자본제 사회의 자기논리에 의해 상위에 놓여지고 권력위에 군림하고 있다.

정치권력은 총체적인 자본의 요구를 대변, 현 한국자본주의의 기본적 특징의 하나로 권력의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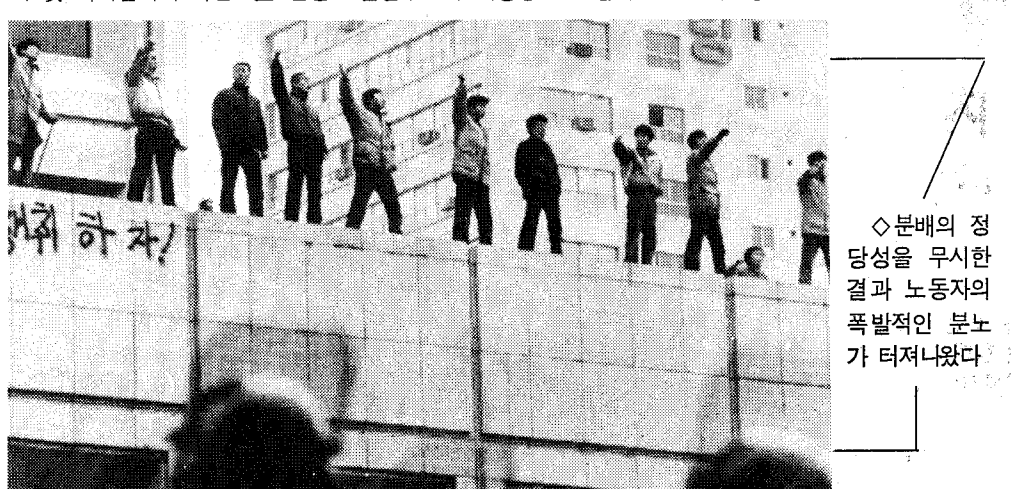
특수적 상황이 한국경제에 조성된 자본의 분배에 의한 고전적인 자본주의 발전이 저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식민지적인 착취, 수탈구조와 전후 냉전체제의 전제는 외세에 의한 반공정권의 성립과 정권에 의한 대자본의 육성이라는 독특한 지배구조를 잉태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분단이데올로기의 작용에 의한 이념적 지향의 한계와 지배구조의 취약성에 기인한 역사적 정치체제는 역으로 경제발전의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전진적 발전방향을 통일적 대전제에 안고, 안보가 우선시되고 이에 따라 경제안정이란 정적은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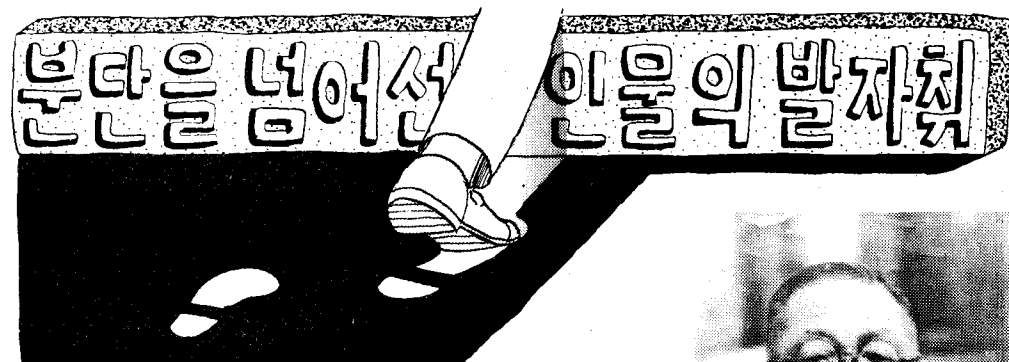
제적으로 종속적 자본의 격차등 파행적 경제구조를 유발시키기도 한 것이다.

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위기를 만들어 나갔다.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과잉투자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켰으며 막대한 원리금상환의 부담, 그리고 일부기업의 편중특혜지원으로 인한 투자과잉 중복투자를 거듭하기도 하였다. 즉 축적 구조조정을 위협하면서 불황, 인플레이션 국세수지위기의 등 시진행의 형태로 나타난 고강도의 경제위기는 80년대의 경우 -4.8%의 경제성장률이라는 상태를 유발하여 정치적 위기로까지 파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군부의 재계입으로 폭력적 방식에 의해 결되고 또한 독점대자본은 국가와 외국자본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이후 고도적 고도성장속에서 자신의 지배구조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분배의 정당성을 무시한 결과 노동자의 폭발적인 분노가 터져나왔다



—김구의 남북협상과 민족주의(上)—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며 패권의 기록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더구나 우리민족과 같이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이념과 체제가 다른 정권이 40여년간 지속되어온 상황에서는 더욱 정치적인 영향으로 역사가 왜곡되거나 날조된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 우리의 독립운동사나 통일운동사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백범 김구선생(이하정정생략)의 통일 운동에 관한 이해와 평가도 정치적 영향으로 말미암아 40여년 동안에 걸쳐서 왜곡되게 전파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정세에 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은 더욱 김구의 통일론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일본군을 무장해제한다는 이유로 미·소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유류 38도선을 구획하여 남북으로 진군한 결과로 한반도가 분단되었고 미·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체제의 공산주의체제로 갈라지게 되었다.

3·1운동을 계기로 전민족의 피와 땀의 결정으로 수립되어 27년간 조국의 독립운동의 본산으로 부쳐져온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마지막 주권인 김구선 의제가 그어 놓은 이 38도선을 인정할 수 없었고 외세가 지배하는 상황속에서 남북으로 양립되는 정권수립을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민족의 분열을 막고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남북지도자 회의를 제정하여 남북협상을 맺던 제의의 뜻을 폄하하였다.

김구의 통일론은 3·1 광복후 처음으로 정치적 발상에서 창출된 것이 아니고 임시정부 27년간의 긴 역사속에서 그 근원을 찾아 볼 수 있다. 간추려 보면

- 1) 1919. 9. 3개지역 임시정부의 통합
- 2) 1927. 11. 유일독립당운동과 국내선언조치
- 3) 1935. 7. 5당통합운동
- 4) 1937. 8. 중일전쟁 발발 직후 민족연합선전 결성. 대동단결 합동호소
- 5) 1939. 5. 광복선전(김구)과 민족선전(박헌영) 합일민족연합선전 결성.
- 6) 1939. 7. 좌우 5당통합, 서명운동 전개
- 7) 1940. 5. 민족주의 3당통합, 학국독립당 결성
- 8) 1942. 7. 광복군과 의용군 합병, 광복군으로 통일.

9) 1942. 2. 8. 통일의회 형성, 1차연합대국구성

10) 1944. 4. 개항으로 야당 대거입각, 민족통일정부 형성, 민족연합선전을 구축하고 8·15까지 지속.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미·영·소 삼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서울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1946년에 제1차, 1947년에 제2차 회의가 있었으나 한국의 통일국가 건설 방안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6월에 결렬되자 미국은 북

한을 합법화하고 고령화하여 나이가 지긋한 이승만을 유방한 것은 간파하고 이승만의 단정론을 정면으로 반대하며 1947년 12월 22일 단독정부수립 배경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자주적 민주적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남북 지도자회담, 즉 남북협상을 제의한 것은 그로부터 한달인 1월 28일이며 이는 UN한국위원단에 제시한 정부수립에 관한 의견서에서 밝혔던 것이다.

그러나 UN한국과 미군정과의 이견을 추종하는 이승만과 한민당이 단선 단독 수립을 착각 추진하고 있는 내외정세가 매우 위험한 상황인 데다가 3·1절이 임박한 것을 통렬히 반대하는 성명을 2월 10일 3천만 동포에게 읊고함이라는 글로 조국통일의 굳은 의지를 천명하였던 것이다. 이 글 가운데 “3천만 형제자매! 한국이 있고야 한국사람이 있고, 한국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 감을 물을 감을 의심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피차에 진지한 애국심에 호소해 보자. ... 마음속에 38선이 무너지고야. ... 38도선 조약을 건설했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져서 단선정부의 구자한 안일을 취하여 독립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 라고 울면서 3천만 동포에게 호소하였는데 이말은 지금 우리에게 아니 후손에게까지 주는 조국통일의 교훈이라 할 수 있다.

그로부터 6월 29일 16일에는 북한의 김두봉과 김일성에 전서를 보내며 남북통일에 대한 협상을 제의하고 지도자로써의 역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라고 호소하였던 것이다. 2월 26일 UN소총회 단선결의에 대한 반박성명을 그 다음날 발표하고 이를 후, 3·1절에는 “북에서 전해오는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나 남에서 떠드는 중앙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은 모두가 우리의 조국을 영원히 양분시키는 것으로써 이것은 독립전쟁에서 사망한 독립투사들이 바라보는 바는 아닐 것이다”

이 성명이 계속될 때까지 통일된 조국의 자주독립만을 쟁취하기 위하여 분투하자”라고 또다시 호소하였던 것이다.

백범은 1947년 말에 이르러 단선거기 단정수립론이 대두되자 외세로 인한 한민족의 분열과 한반도의 분단을 한민족 스스로가



이를 합법화하고 고령화하여 나이가 지긋한 이승만을 유방한 것은 간파하고 이승만의 단정론을 정면으로 반대하며 1947년 12월 22일 단독정부수립 배경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자주적 민주적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남북 지도자회담, 즉 남북협상을 제의한 것은 그로부터 한달인 1월 28일이며 이는 UN한국위원단에 제시한 정부수립에 관한 의견서에서 밝혔던 것이다.

그러나 UN한국과 미군정과의 이견을 추종하는 이승만과 한민당이 단선 단독 수립을 착각 추진하고 있는 내외정세가 매우 위험한 상황인 데다가 3·1절이 임박한 것을 통렬히 반대하는 성명을 2월 10일 3천만 동포에게 읊고함이라는 글로 조국통일의 굳은 의지를 천명하였던 것이다. 이 글 가운데 “3천만 형제자매! 한국이 있고야 한국사람이 있고, 한국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 감을 물을 감을 의심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피차에 진지한 애국심에 호소해 보자. ... 마음속에 38선이 무너지고야. ... 38도선 조약을 건설했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져서 단선정부의 구자한 안일을 취하여 독립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 라고 울면서 3천만 동포에게 호소하였는데 이말은 우리에게 아니 후손에게까지 주는 조국통일의 교훈이라 할 수 있다.

그로부터 6월 29일 16일에는 북한의 김두봉과 김일성에 전서를 보내며 남북통일에 대한 협상을 제의하고 지도자로써의 역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라고 호소하였던 것이다. 2월 26일 UN소총회 단선결의에 대한 반박성명을 그 다음날 발표하고 이를 후, 3·1절에는 “북에서 전해오는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나 남에서 떠드는 중앙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은 모두가 우리의 조국을 영원히 양분시키는 것으로써 이것은 독립전쟁에서 사망한 독립투사들이 바라보는 바는 아닐 것이다”

이 성명이 계속될 때까지 통일된 조국의 자주독립만을 쟁취하기 위하여 분투하자”라고 또다시 호소하였던 것이다.

백범은 1947년 말에 이르러 단선거기 단정수립론이 대두되자 외세로 인한 한민족의 분열과 한반도의 분단을 한민족 스스로가

<다음호에 계속>

우리의 현대 세계의 현대

●자동차산업

●해운업

●항공산업

●중공업

●전자산업

●건설업

세계의 자유와 평화, 繁榮 — 現代와 더불어 未來가 있습니다.



凍土의 시베리아

열사의 중동에 이룩한 大役事를 비롯, 빙하의 남극에 건설한 世宗 과학연구기지, 미 대평양 연안에 설치한 세계 최대의 원유시추용 해양구조물 엑스 자켓, 문순기 약전후 속에서도 설치하는 인도양 심해의 천연가스 채굴용 해상 플랫폼 등의 大役事를 이룩한 現代는 이제 시베리아 극한지대에서 한국에 필요한 모든 자원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現代는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개척정신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끊임없는 대장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現代와 더불어 未來가 있습니다.

